



물건 이야기
애니 레너드 지음
김승진 옮김
김영사
500쪽
16,000원

사람에게 일생이 있듯이 물건에도 일생이 있다. 환경운동가인 저자는 티셔츠, 휴대전화 등 사람들이 손쉽게 쓰고 버리는 물건이 생산, 유통, 소비, 폐기되는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추적하기 위해 20년 넘게 세계 각지를 누볐다. 그 결과 티셔츠 1장에 필요한 면화를 얻기 위해 물 970L가 사용되며, 반지 하나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금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20t의 광산 폐기물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복사용지 11을 만드느라 2~3t의 나무가 잘려 나가고 98t의 각종 자원이 들어 가지만 미국 도시의 생활쓰레기 중 40%가량이 종이라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더욱 경악할 일은 세계 인구의 5%가 세계 자원의 30%를 소비하고 세계 폐기물의 30%를 내놓고 있다는 사실. 그럼에도 기업들은 물건의 교체 주기를 더욱 짧게 해 소비자들로 하여금 수리해서 쓰기보다 새로 사서 쓰는 쪽을 택하도록 강요한다. 문제를 개선할 방법은 없을까? 저자는 “개인 소비자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지”가 아니라 “공동체와 시민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는 데서부터 출발하자고 말한다.



한국인의 심리 코드
황상민 지음
추수밭
296쪽
15,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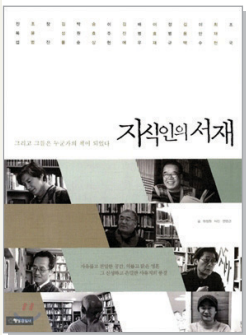
연세대 심리학 교수인 저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심리학자다. 연예인 자살, 사교육 열풍, 저출산, 밥값보다 비싼 커피값 등 우리 사회의 온갖 현상을 외국에서 ‘수입한’ 심리학이 아닌 ‘한국인’의 입장에서 깊이 있게 통찰한다. 때로는 자신조차 모르던 진짜

속마음을 그로 인해 알게 되는 진풍경마저 연출된다. 황 교수에 따르면 대다수의 한국인은 ‘멋진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체념하고 마는 이중적 정체성을 갖고 있다. 누구보다 잘 살기 위해 늘 무언가를 찾아 헤매지만 외부에서만 찾기 때문에 갈증이 가시지 않는다고도 지적한다. 이를 바탕으로 성공과 출세, 부와 부자, 나이와 세대, 짝과 결혼 등 한국인의 대표적인 심리코드를 다뤘다. 책을 덮을 무렵이면 사람마다 각기 다른 심리코드를 통해 살아가며, 그만큼 다양한 삶의 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 이쯤 되면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도 괜찮다는 용기가 생겨날 법도 하다.



행복하게 일하는 연습
코이케 류노스케 지음
박현미 옮김
랜덤하우스코리아
248쪽
12,000원

‘이렇게 하찮은 일은 내게 어울리지 않아’ ‘빨리 돈을 벌고 싶어’ ‘왜 다들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라고 생각하는 직장인이 적지 않다. 하지만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하는 미망, 성공만을 쫓아가는 욕망,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분노는 스트레스로 작용할 뿐이다. 일본과 한국에서 ‘생각 버리기’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스님의 이번 책은 일종의 ‘일 처방전’이다. 저자는 일본 동경대를 졸업한 후 회사원, 편의점 아르바이트, 수험 강사 등으로 일했기에 직장인들이 겪는 애로를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들려주는 조언은 뜻밖이다. “거창한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마음이 해이해졌다는 뜻이므로 딴 데로 눈 돌리지 말고 치진 마음이나 돌보라”는 식이다. 내놓는 처방 역시 단순명쾌하다. “눈앞에 닥친 일이나 하나씩 처리하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천하는 순간 번뇌도 스트레스도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지식인의 서재
한정원 지음 / 전영건 찍음 /
행성:B원새 / 432쪽 / 17,000원

문 하나만 닫으면 세상과 외떨어져 사색하게 되는 곳. 자신의 드러난 내면이자 홀로 존재함에도 세상의 많은 곳에 가 닿고 많은 이와 만나며 영혼을 살찌울 수 있는 곳. 다름 아닌 ‘서재’다. 커다랗고 폭신한 의자에 온몸을 떠맡긴 채 수많은 책이 차려 놓은 향연에 초대받는 일은 누구나 한 번쯤 꿈꿔 봤을 법한 ‘로망’이다. 이 책은 미친 듯이 책을 탐하다가 자신이 마침내 누군가의 책이 되어 버린 이 시대 지식인 15명의 서재를 담았다. 폭풍처럼 내면을 강타하고, 아집을 깨부수고, 처참하게 무너지려는 자신을 추슬러 일으키고 형형한 눈빛을 만들어 낸 그들의 서재에는 과연 어떤 책이 꽂혀 있을까? 이들에게 서재는 책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자신’이 있는 공간이라고 불러야 더 어울리지 않을까?



여자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는 절반의 진실
메리 로우 퀴란 지음
정경호 지음
엘도라도
232쪽
12,000원

고객으로서 여자들은 남자보다 강하다. 제품과 서비스의 85%를 구매하거나 구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자들이 진심을 터놓지 않는다는 것. 겉으로는 칭찬하지만 뒤에서는 탄소리를 하며 지갑을 열지 않는다. 뚱뚱한 모발을 등장시킨 '진정한 아름다움' 캠페인으로 여자들로부터 환호 받고 광고상까지 휩쓴 화장품회사 '도브'. 하지만 매출은 속수무책으로 떨어졌다. 절반의 진실 뒤에 숨은 여자들의 나머지 진실, '실제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을 읽지 못한 탓이다. 여성의 행동과 소비심리를 연구해 왔으며 미국 유수의 전략마케팅사 'Just Ask a Woman'의 최고경영자(CEO)인 저자는 이 책에서 여자들이 말하지 않는 절반의 진실을 드러내 완전한 진실을 밝혀냈다. 집안일이 힘들다고 호소하면서도 정작 본인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희생'이 한 예다. 세계적인 가구 브랜드인 '이케아'는 이런 여성들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 정리정돈에 관한 기술과 세련된 인테리어로 대박을 터뜨렸다.



나는 가끔 속물일 때가 있다
악셀 하케 · 조반니 디 로렌초 지음
배명자 옮김
푸른 지식
256쪽
14,500원

'지금처럼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대의를 버리고 자기 계층에 투표한 적이 있는가?' '환경의 소중함보다는 체면과 과시를 위해 큰 차를 구입한 적이 있는가?' 이들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할 수 없다면 당신도 속물일지 모른다. 설사 학생 시절 사회운동을 열심히 했더라도,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는 사회적 지

도자일지라도... 25년 지기 친구이자 각각 작가와 편집장으로 성공한 저자들 역시 예외는 아니었던 모양이다. 사회적으로 무관심이 늘어나면서 다 함께 살기 위한 방법을 얘기하던 이들은 잇고 살았던 사회적 책임감의 중요성을 새삼 떠올리게 된다. 그리하여 자신의 이중성과 이기적인 가치관을 먼저 털어놓기로 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의 모순이 사회의 모순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생생하고 흥미롭게 전개된다. 건강하고 튼튼한 사회구성원이 되려면 각 시안에 대한 명확한 가치 판단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저자들은 독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옳은지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




투자학 콘서트
리지엔 지음
이지은 옮김
티즈맵
264쪽
13,800원

금융 심리 전문가인 저자는 "손해를 피하고 이익을 보려는 집착이 투자에 대한 판단을 흐리게 해 투자에 실패하게 된다"고 경고한다. 노력하지 않고 막연한 '감'으로 투자에 나서는 이들도 적지 않다. 이는 정확한 진단도 없이 감만 믿고 수술하거나 골프채를 잡자마자 타이거 우즈의 실력을 기대하는 것과 같다. 이래선 일을 해도 돈이 부족한 '워킹 푸어'나 내 집을 갖고 있어도 여전히 가난한 '하우스 푸어'가 될 수밖에 없다. 의사가 되기 위해, 프로 골퍼가 되기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하는 것처럼 부자가 되고 싶다면 투자에 대해 알아야 한다. 저자는 "투자자의 필연법칙부터 배우라"고 충고한다. 그 중 하나는 부자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는 것. 부자들은 놀랄 정도로 절약하지만 쓴 물건은 찾지 않는다. 비용 대비 품질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똑같이 돈을 써도 가난한 사람이 소비만 한다면 부자는 투자를 한다는 점도 다르다. 돈이 돈을 벌게 하는 투자법, 재테크의 6가지 비밀, 부자들만 아는 2%의 지혜 등을 공개했다.



동물과 인간 사이
프리데리케 랑케 지음
박병화 옮김
현암사
224쪽
12,000원

동물들도 일상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까? 생존을 위해 중요한 문제들을 해결할까? 반려동물 1천 만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 수치가 맞다면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가정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이 기르는 동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인지생물학자인 저자는 동물과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동물 지능 실험실'을 열었다. 실험실에는 개와 늑대를 비롯해 고양이, 원숭이, 앵무새 등 다양한 동물이 초대됐고, 건물 안은 물론 야생의 정글에서도 실험이 이어졌다. 그 결과 인간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져 왔던 능력을 동물들도 지니고 있음이 속속 밝혀졌다. 협동, 배신, 목표 달성을 위한 계획, 상대방에 대한 통제, 역할 분담 등등. 동물을 인간보다 하등하다고 보는 '몰이해'에서 벗어나 동물 역시 개별적이고 독특한 사고방식을 지녔음을 알려주는 행동실험이 흥미진진하게 펼쳐진다. 

서지훈 기자 ibuddy@hamail.net